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4월 10일(주일) 제1094호



자발적 불편함이 행복함으로!

오늘은 대중교통 타고 교회 오는 날 지역사회와 환경문제까지 생각하는 캠페인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에 오는 날이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장애인, 식배송 차량 등 사전 허가된 차량 외에는 교회 주차장 이용을 할 수 없다. 교회 반경 4km 이내 주차도 자제해야 한다. 양재 온누리교회는 주차증을 발급받은 장애인, 노약자, 환자, 임산부, 유아동반 차량만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서틀버스는 양재역에서만 운행한다. 오늘은 외부 주차장(양재 환승, 구립, 시민의 숲)을 이용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주차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택시를 타고 올 경우에도 강남대로나 일동제약 앞에서 하차해 도보로 교

회에 와야 한다. 교회 주변 불법주차는 당연히 할 수 없다.

사회선교부가 주관하는 '대중교통 이용해 교회가기 캠페인'은 지역사회와 경제, 환경문제까지 생각하는 실천운동이다.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시행했었다. 이날만큼은 지역주민을 배려하고, 교통 혼잡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자동차 운행을 줄이면서 대기환경 오염문제 해결에도 동참할 수 있고,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에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다음은 사회선교본부장이 기훈 목사 and 일문일답.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의 유익은

“이 캠페인은 주차문제와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불편함

을 선택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한 말씀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주민들을 배려하고, 교통혼잡과 대기환경 문제까지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의: 02-3215-3268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다음 주는 '장애인주일'

특순, 작품전시회, 자선장 등 기념행사 풍성

다음 주(17일) 장애인주일을 맞아 교회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서빙고 예배에서는 온사랑 합창단, OMW(사랑부 부모들로 구성된 합창단), 사랑멤버, 김어령 형제가 특순을 한다. 모자이크플러스(발달장애청년을 위한 주중프로그램)는

사랑부 소속 장애인들이 만든 작품 40점을 서빙고 신관 커피숍과 이천 만광장에 전시·판매한다.

양재는 2, 3부 예배에서 사랑부가 밤벨 특순을 하고, 부전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및 기도제목이 적힌 전단지를 제작 배포한다. 그림전시회

와 자선장도 열린다.

인천 사랑부는 '프리 스페이스'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통합예배를 드린다.

강동은 오늘(10일) 1, 2부 예배에서 사랑부 학생이 특순을 하고, 다음 주(17일) 2부 예배에서는 사랑부 학생들과 어머니들이 합창을 한다. 장애인을 부서를 섬겨 줄 교사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2-3215-3268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굿월스토어에 기증하세요”

24일까지 캠페인 실시

‘굿월스토어’가 장애인주간을 맞아 사용 가능한 생활용품을 기증받는다. 서빙고 양재, 수원 온누리교회는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오늘(10일)부터 17일까지 교회에 설치되는 굿월스토어 수거함에 생활용품을 가져다 넣으면 된다. 혼자 들 수 없는 대형 가전제품이나

손상이 심한 가구 등은 기증을 받지 않는다. 기부할 물품이 너무 많거나 무거울 경우에는 굿월스토어에 전화로 문의하면 직접 수거해 간다. 4월 24일 이후에는 굿월스토어 홈페이지나 전화로 기증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 온누리교회가 굿월스토어에 기증한 물품은 총 81,352점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3백3십만 원이다. 문의: 02-6910-9191

전도의 황금어장 ‘군 교회’를 돕자

장병 위한 ‘양육과 교제’ 절실, 군부대에 순(筭) 만들자



고영수 목사가 55탄약대대 병사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성찬식 중인 정경구 목사와 8966공병대대 병사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본지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역, 기독교 기관 및 단체, 이웃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열 번째 주인공은 남양주 55탄약대대 소망교회 고영수 목사와 원주시 8966공병대대 성원교회 정경구 목사다.

군대를 흔히 전도의 황금어장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전도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군 교회 상황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에 군 교회가 약 1,017개 있는데 군종 목사(직업군인)는 260명뿐이다. 나머지 군 교회는 800여 명의 민간인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다. 60만 장병을 위한 목회자와 선교사가 고작 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민간인 군 선교사는 자원봉사자다. 지난해부터 대형교단에서 약간의 사례를 지급하고 있지만, 지금도 민간인 군 선교사 80% 이상이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다. 군부대에서 민간인 군 선교사들에게 지원해주는 것도 없다. 그들 스스로 교회 유지비, 간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있다. 그 힘든 와중에도 장병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여념이 없다. 남양주 55탄약대대 소망교회 고영수 목사와 강원도 원주시 8966공병대대 성원교회 정경구 목사도 그들 중 한명이다. 고영수 목사는 온누리교회 간사 출신이고 정경구 목사는 온누리교회 성도였다. 지난 4월 3일 그들을 만났다.

55탄약대대 소망교회 고영수 목사

소망교회 고영수 목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께 서원했다. 1994년 군대를 전역하고 서빙고 온누리교회 방송실 간사로 섬기면서 신학대학교 학비를 모으고, 목회에 대해 배웠다. 방송실에서 매주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학에 대한 꿈을 키웠

다. 신학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말 많았다. 일 년 공부하고, 일 년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학비를 마련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치기까지 9년이나 걸렸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영안교회 전임목회자가 되었다. 꿈에 그리던 목사가 되었는데 무엇인가 공허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역을 원하시는 것 같았다. 농어촌교회로 사역을 옮겨 3년을 섬겼다. 그것도 시원치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군종목사를 만나 지금 사역하고 있는 소망교회에 오게 되었다. 소망교회의 첫인상이 좋지 않았다. 교회가 마치 창고 같았다. 음침하고, 쾌쾌한 공기가 목과 코를 찔러댔다.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병사들이 보였다. 교회만이 힘든 군 생활에 지쳐있는 병사들의 안식처였다.

“장병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를 병사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매주 예배드리고 나서 병사들과 성경공부를 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병사들에게는 개인상담을 해줬다. 성경공부에는 자신 있었지만, 상담은 어려웠다. 그래서 상담대학원에도 진학했다.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교회를 찾는 병사들도 점차 늘었다. 많아 20명 남짓이던 병사들이 50명으로 늘었다. 간부들도 교회에 나왔다. 간부들 스스로 예배를 섬기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헌금을 모아 마련해주기도 했다. 그는 군 교회를 섬기면서 민간교회를 섬길 때와 차원이 다른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매주, 매시간이 은혜로웠다. 어려운 경제사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병사들을 위해 공부한 상담학이 도움이 됐다. 지역사회에서 독서치료를 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는 독서치료를 해서 받은 사례로 병사들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채워 주십니다. 저는 오롯이 병사들 생각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선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8966공병대대 성원교회 정경구 목사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8966공병대대 성원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경구 목사는 양재 온누리교회 성도였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온 탕자라고 소개한다. 청년시절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다. 그런데 1987년 다니던 교회가 분열되면서 그 이후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았다. 2002년 지인의 소개로 양재 온누리교회에 출석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고, 새가족반을 섬기며 신앙을 회복했다.

그는 2006년 합동신학대학원에 진학했다. 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우연히 온누리교회 군선교기도회에 참석했다가 강찬석 장로를 만났다. 강 장로가 민간인 군목을 구하는 군 교회를 소개해줬다.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야겠다”는 심정으로 성원교회를 찾았다. 그렇게 강원도 원주 8966공병대대를 찾은 그는 갑자기 전도사 시절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신학생 시절 동기 전도사와 1,000여 명의 대학생들을 집회에 초대했는데 단 한 명 왔다. 그 일을 계기로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군대는 달랐다. 청년들이 가득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말없이 성원교회를 사역지로 선택했다.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딱 2년이 지나자 좌절감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예수의 예자도 모르면 병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신앙이 생기면만하면 전역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맥이 빠졌다. 군 교회 사역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마침 전역하는 병사들을 터미널까지 배려해 줄 기회가 생겼다. 가끔씩 교회에 나오던 병사들이었다.

“전역하면 계속 교회 다닐 거지?”

“군대라서 교회나간거지 전역하면 갈 일 없습니다. 목사님.”

병사들의 대답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때부터 매주 신병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신병들의 두려움과 긴장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

“4성 장군보다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병 백이면 백, 그와 대화를 나눈 다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동안 그와 면담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병사가 약 500명이다. 2012년부터 8966공병대대를 거쳐 간 모든 병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를 영접한 병사들이 모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지난해 3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왼쪽에 마비가 왔다. 올해 3월에는 심혈관 확장 수술도 받았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데에만 집중할 법도 한데 그는 병사들이 더 우선이라고 했다.

“수술 받느라 한 주 동안 병사들을 못 봤더니 기운이 안 납니다. 병사들과 있으면 기운이 샘솟습니다.”

주말마다 군 교회를 찾아가자

두 목사가 공통적으로 군 교회에 ‘양육과 교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기신자 병사와 초신자 병사 모두에게 양육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국기독교군선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4개 군부대에서 세례를 받은 병사가 15만 2238명으로, 2014년 14만 1395명보다 1만 843명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병사는 매년 줄고 있다. 양육이 부족해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군부대 교회에 순(筭)을 만들어 공동체 활동을 그리워하는 기신자 병사들과 교회가 생소한 초신자 병사들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예배지원 등으로 군부대 목사들과 민간인 군 선교사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도 좋다. 성원교회와 소망교회 뿐만 아니라 전국 군 교회의 사정이 열악하다. 내가 전역한 부대, 내 아들이 근무한 부대 교회를 방문하고, 후원하자. 대한민국 군대가 복음화 될 것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문의

성원교회 정경구 목사 010-2363-3321
소망교회 고영수 목사 010-3137-6566
온누리교회 군선교팀 김준용 팀장
010-3787-1958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헬라 문명의 본산지 아테네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헬라의 중심지입니다. 철학, 문화,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고, 주 활동 무대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아테네를 고향으로 여기며 활동하였습니다. 로마제국 시대에도 아테네는 과거만 큼은 아니지만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항구에 도착했을 때 높이 솟아있는 많은 신전들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약 2만5천~3만 개의 공동 신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신전이요, 신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전들의 건축학적인 가치와 예술미는 상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문화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헬라 문명의 화려한 신전들을 보면서 감동한 것이 아니라 격분했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행 17:16).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 철학, 예술의 극치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상도 발달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 되어서 미신이 사라져야 하는데 미신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미신은 통하는 데가 있다. 지성이 많을수록 우상을 더 유식하게 포장하고 표현할 뿐이다.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표현하고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대로 표현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 시대와 동일하게 우상과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도시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탄식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실제적 의결기구 ‘아레오바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간적인 분노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지혜로 바뀌서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고, 오늘날 ‘아고라’라고 불리는 광장과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일은 별로 하지 않고, 모여서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도 모두 철학적

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헬라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철학을 꿰 뚫어 볼 수 있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철학의 맹점과 약점, 문제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아테네를 지배하고 있었던 두 철학파를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철학파는 에피쿠로스철학과 스토아 철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학파는 주전 341년부터 270년까지 살았던 에피쿠로스는 사람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유톨론자들과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자 혹은 물질의 분자에서 왔다. 그래서 물질로 이루어진 인생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이다. 다시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도 우연한 원자의 조합이다. 우연히 원자가 조합돼서 이뤄진 것이다. 신도 이런 원자의 조합일 뿐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든지 인간을 통치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물질의 조합 일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목적은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최고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에피쿠로스학파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인정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물질로 보고 해석했습니다. 스토아학파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했습니다. 아테네에 있던 행각을 스토아라고 했는데 거기서 많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스토아학파는 물질이 전부라고 보지 않고 신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이라는 범신론을 주장했습니다. ‘만물의 운명은 모두 결정되었다. 인간의 운명도 이미 결정되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운명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학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 받는다는 것이 하찮고, 어리석어 보이고, 체계화되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18절).

말쟁이라는 단어는 경멸하는 의미입니다. 새가 다니면서 씨를 쪼아 먹듯이 그런 일을 하는 저급하고, 어리석은 사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상이고, 철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하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요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무식해 보이고, 유치해 보이고, 이해하기 힘든 사상일지라도 새로운 사상일 경우에는 들어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사상이 들어오면 반

드시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19-20절).

아레오바고는 로마통치하에서 자치정부를 운영하는 실제적인 의결기구였습니다. 철학과 교육, 도덕, 특히 외래에서 오는 사상 종교에 관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그리스 대법원의 명칭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는 새로운 사상을 들어보는 멋진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형을 연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아레오바고를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사형을 연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국가의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연도하고 처형한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일단 들어보기는 합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가 막힌 두 가지 접촉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한 설교는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교철학, 우상, 미신, 세상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가 나타나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실패한 설교라고 주장합니다. 결신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결신율이 저조하면 실패한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멋진 설교였습니다. 대상과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설교였습니다.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철학과 사상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철학과 대립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익숙한 철학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한 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접촉점을 너무나 잘 찾았습니다.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듣도록 만드는 접촉점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 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22-23절).

두 가지 접촉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 여러분은 참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당신들은 우상에 찌든 사람들입니다”라고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참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신사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두 번째 접촉점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붙여진 제단이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수 만개의 신상과 제단을 세웠지만 바울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붙여 놓은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대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신이 많다는 것은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안해서 그냥 세운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을 만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붙어있는 제단이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은 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고 하니 귀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힌 접촉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접촉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접촉점이 되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24절).

신은 인간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든 공간에 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전을 만들고, 수많은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에 갇혀 있지 않다고 선포했습니다.

둘째,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인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는 신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25절).

〈13편에 계속〉

기획_예수님께 배우는 리더십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인, 관계, 집단, 사회적 차원에서 본(本)을 보이신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구현해 나가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뽑아 준 국민을 대신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한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 장로 장로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참된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이장로 장로
장로아카데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리더십학교 교장
장로회신학대학교 겸임교수

지금 우리는 권력을 가진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권력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단적인 사례가 미안하지만, 국회의원인 것 같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등 여타 권력기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재벌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신감은 여전히 크다. 과연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도자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작은 예수’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셨다. 그런 예수님을 이 시대에 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리더십 연구의 4가지 접근방법(개인, 관계, 집단, 사회적 차원)으로 예수님의 리더십을 해석해 보겠다.

개인 차원의 ‘셀프리더십’

개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기를 알고, 소명을 따르는 셀프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의 자기 인식, 사명의식, 팔로워십(followership)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끌었다.

첫째, 예수님은 자기 인식이 분명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막 1:11, 마 3:17, 눅 3:22)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는 ~이다’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요 6:35, 48, 51),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 8:12), “나는 문이다”(요 10:9), “나는 선한 목자다”(요 10:11),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자”(요 11:25),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자”(요 14:6), “나는 참 포도나무다”(요 15:1).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기까지 광야에서

고,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사명에 목숨을 걸었고, 바울도 그랬다. 바울의 높은 사명감은 우리들에게 본이 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의 모든 것까지 버리고 여기까지 아니하노라”(행 20:24).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셋째, 예수님의 팔로워십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팔로워’(Follower, 추종자)로 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 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빌 2:6-8). 십자가의 죽음이 라는 잔을 앞에 두고 겻세마네 동산에서 “내

불신이 만연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작은 예수’
순종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무장해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 것

40년을 보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에 가능했다. 모세나 예수님의 자기 인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인식은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진리다. 오늘날도 어느 사람이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함께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고,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사람이 참 지도자이다.

둘째, 예수님의 사명의식이다. 사명이란 보낸 사람이 맡긴 임무를 의미한다.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셨고, 보내신 이의 뜻 즉, 자기의 임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마 10:40, 15:24, 눅 4:18-19, 요 3:34, 4:34, 5:24, 6:39 외 다수). 예수님은 사명의식 속에서 사셨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지도자는 사명의식 속에서 살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리스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임무를 알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늘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셨다. 크리스천 지도자 역시 팔로워로서 살아야 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그런 사람을 높여 주신다. 자기를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지도자의 본분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나의 사명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역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기도 시간을 늘리도록 힘써야만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관계 차원의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셨다(막 10:45).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김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오셨다. 관계 차원에서 본 예수님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사람을 얻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서번트 리더십에는 4가지 핵심요소가 있다.

첫째, 예수님의 성육신 모델이다. 예수님이 사람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처럼 사람을 얻는 제 1원칙은 자신의 위치를 떠나 자신이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관계가 깨진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하자. 이때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아버지가 권위를 내려놓고 아들에게 찾아가야 한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둘째, 종의 모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셨다. 제자들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된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막 9:33-35)고 말씀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잡히시기 약 10시간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4-15). 죽음이 임박한 시간에도 어떤 것보다 우선시했던 것은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었다.

셋째, 예수님의 희생이다.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은 성육신, 종의 모델에 이어 희생제물이 되신 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성경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7-8)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엡 5: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피 값 주고 산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지도자가 사람을 얻는 비밀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의 몸 된 교회 즉,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의 삶이 있다면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를 따를 것이 분명하다.

넷째,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랑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지도자 ‘작은 예수’

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요 13:1). 몇 시간 후에 잡히시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도, 제자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셨다. 만일 나라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가롯 유다마저 끝까지 사랑하고, 기회를 주셨다. 부활하신 후에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의 표징을 보여주셨다. 일상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시고, 조반을 준비해 먹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집단차원의 ‘임파워링 리더십’

집단 차원에서 예수님 리더십의 특징은 제자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능력부여(empowerment)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임파워먼트’(empowerment)라고 한다. 구성원들이 지닌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임파워링 리더십’(empowering leadership)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동시에 필요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요 14:12, 행 1:4-8, 막 16:17-18).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현장 학습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모습은 물론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70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능력을 주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학습도 시키셨다. 또 제자들이 성숙해지는 방법으로 제자 삼을 것을 명령하셨다.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직접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의 성숙을 위해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성숙을 도모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임파워링 리더십이다.

교회 지도자가 힘써야 할 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작은 예수로 자라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지도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사모해야 한다. 성경은 이러한 영적 은사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지도자는 영적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권능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이 재능을 사용해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재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도자가 사람들의 재능을 강화시키려면 ‘적재적소 배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가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맞는 자리에 가야 능력도 개발되고, 조직도 건강해진다. 그렇게 하려면 리더는 사람을 볼 때 성품도 봐야 하지만, 그 사람의 재능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맞는 일을 주고, 그 일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면 기쁨으로 리더를 따를 것이다.

사회 차원의 ‘변혁적 리더십’

예수님의 사회 차원적 리더십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변혁적 리더십’이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날마다 인식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는 뿐이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문화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고 하셨다(마 13:33). 요리사는 빵을 반죽할 때 누룩을 첨가한다. 누룩이 작용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누룩은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 반죽을 부풀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존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Calling)과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Mission)은 분리될 수 없는 사실이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Calling)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보화와 같고(마 13:44),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마 13:46)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보물 혹은 진주를 발견한 자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새로운 보물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치와 같을 수 없고,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통치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없다. 예수님은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하셨다(막 4:26-29).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들은 엉겅퀴와 같은 방해꾼들에도 불구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끝없이 확장되고,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오늘날도 세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에 아무리 끔찍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고, 또한 부르시고 계시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우리의 삶이 직결되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배운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한다.

청년들이 희망을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희망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많이 본다. 청년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지나친 사회적 격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런 격차가 대를 이어가며 확대된다고 보기에 더욱 절망한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지도자는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현재의 시스템 구조를 다시 바꾸고, 혁신적 변화를 꾀하더라도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는 사명을 가진 ‘작은 예수’ 같은 리더를 영향력 있는 권력기관들로 보내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학생들을 작은 예수 같은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 교육과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정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다가오는 총선에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정직한 사람이 많이 선출되는 선거의 혁명이 필요하다. 불신의 시대, 절망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주는 작은 예수 같은 섬김의 리더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리더십의 본을 보이셨다. 섬기는 리더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한다.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4-15).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며, 바울의 핵심 메시지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5가지로 요약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실재한다. 그 나라는 볼 수 있고(막 9:1, 눅 9:27), 들어갈 수 있으며(마 7:21, 요 3:5), 상속받을 수 있다(마 25:34).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1)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실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계획하신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

있는 애굽으로 보내셨다(Mission). 우리도 이와 같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모든 그리스도인은 빵 속의 누룩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로서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한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영적 반대 세력에 맞선다(마 13:25). 사탄은 자신의 제한된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실재하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행인 것은 우리의 적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저지하려 한다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탄이 전투를 이기는 것 같아도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보증해 주셨다.

넷째,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된 이 세계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마치 밭에 감춰진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오성훈 장로는 홍정희 권사의 주치의이자, 선교 동역자다. 의사와 환자로 만나 에젤선교회에서 21년째 동역하고 있다. 그들이 선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자꾸 선교사가 눈에 밟히기 때문이다. 오 장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나누리병원'에서 아픈 선교사와 목회자를 치료해주고, 의료비 감면 혜택도 준다. 홍 권사는 기도가 필요한 선교사의 소식을 들으면 무조건 달려가 중보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그들이 선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신경외과 전문의 오성훈 장로, 에젤선교회 대표 홍정희 권사

오성훈 장로는 공중보건전문의로 군 생활을 마치고, 1979년에 의사가 되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뇌와 척추를 치료하는 신경외과 의사로 재직했다. 1988년 이촌동으로 이사하면서 온누리교회에 오게 됐다. 당시 하용조 목사의 설교가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 크리스천 의사의 사명을 깨닫고, 선교적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주말마다 의료선교 현장을 찾았다. 평일에는 대학병원 의사, 주말에는 의료선교지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9년 어느 날, 의사 서너명과 청년들이 강화도의 한 외판집을 방문했다. 그곳 교회 사모님이 류마티스 환자였다. 극심한 통증을 견뎌 보려고 벽을 긁을 정도였다. 벽지가 온통 핏자국으로 물들어 있었다.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고, 교회가 외진 곳에 있던 탓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오 장로 일행은 큰 충격을 받고 그곳에서 의료선교를 실시했다. 그때부터 오 장로의 선교행전이 시작됐다.

의사와 환자로 만난 두 사람

1991년, 홍 권사가 5살짜리 어린 딸을 데리고 강남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아픈 허리를 움켜쥐고, 절름거리며 병동에 들어섰다. 가녀린 손목과 창백한 얼굴이 홍 권사의 병색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줬다. 오 장로는 당시 홍 권사와의 만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홍 권사님은 디스크가 파열된 상태였어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지요.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낼까 싶더라고요.”

그 둘은 그렇게 만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홍 권사의 디스크가 다시 터졌다. 급히 강남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오 장로가 의료선교를 가고 없었다. 홍 권사는 응급실에서 오 장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 장로는 의료선교지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했다. 의료선교를 마치고 온 오 장로는 응급실로 직행했다. 홍 권사의 상태가 심각했다. 다음 날 새벽 급하게 수술하기로 결정했다. 수술 전 오 장로는 의료진과 함께 손 잡고 홍 권사를 위해 기도해줬다.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오 장로님은 기도해주는 의사로 유명했어요. 수술대에서 기도하고, 회진 돌면서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셨죠.”

오성훈 장로는 회진할 때마다 환자들의 안



오성훈 장로와 홍정희 권사는 21년째 에젤선교회에서 동역하고 있다.

부를 묻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자신의 환자가 아니어도 환자가 원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줬다. 오성훈 장로는 환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인간적이고, 친절환 의사로 평가 받기도 했다.

4년이 지나서 홍정희 권사가 또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셋째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게 된 것. 건강한 여성이 출산을 해도 허리가 아픈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두 번 한 그녀의 허리는 임신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다. 수술은 산모와 아이에게 매우 위험했지만, 미숙아라는 부담을 안고 진행했다. 셋째 아이는 1.9kg 미숙아로 태어나 중환자실로 직행했다. 심장과 뇌, 눈에 구멍이 있는 상태였다. 의료진들은 그 아이가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 진단했다. 홍 권사는 막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 100일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을 찾아가 기도했다. 막내 아이는 100일 후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하여

1995년 에젤선교회가 시작됐다. 오 장로와 홍 권사의 끈끈한 인연은 여기서도 계속됐다. 에젤선교회는 선교사들의 돕는 배필로서 정기적인 기도와 후원을 하고, 선교사 자녀들에게 어린이날 선물, 추석 감사편지, 성탄절 선물 등을 전달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에젤이 그들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한다. 그렇게 1995

년부터 현재까지 에젤선교회는 350여 명의 선교사들을 섬겨왔다. 이 두 사람은 21년째 에젤선교회의 동역자로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를 섬기고 있다.

“선교사님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쓰여 잠을 이룰 수 없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에젤선교회에서 동역한지가 벌써 21년이 됐네요.”

2005년, 에젤선교회는 필리핀 선교사를 위한 사역을 준비했다. 그렇게 오성훈 장로와 홍정희 권사는 중보자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향했다. 오 장로는 필리핀에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이국적이고, 휴양지라고만 알고 있던 필리핀의 열악한 교육 환경과 선교사들의 처절한 영적전투를 직접 경험한 것이다. 특히 선교사 자녀들(MK)이 상처 받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낮선 환경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친구도 없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 인지라 그들의 아픔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오 장로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 선교사 자녀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청소년이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그 형제는 필리핀 아웃리치 마지막 날 오 장로에게 부탁을 청했다.

“장로님, 저는 꿈도, 비전도, 희망도 없습니다. 앞으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저도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오 장로가 그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 아이의 눈빛을 잊어버릴 자신도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꿈은 이뤄진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홍 권사의 SNS에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그때 오 장로가 해준 말에 용기를 얻어 미국 미시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메시지였다.

그들이 써 내려가고 있는 '선교행전'

오 장로와 홍 권사는 선교사들의 친구이자 동역자가 되었다. 홍 권사는 두 번의 허리디스크 수술과 어깨 근육 파열, 전염병(Lyme disease, 사슴에 기생하는 곤충에 의한 전염병) 등으로 고통 받았다. 주사약이 잘 들어가지 않는 증세도 있었고, 발 근육이 굳어 걸을 수 없는 통증도 경험했다. 공황장애도 있었다. 정말 다양한 질병으로 지금도 고통 받고 있지만 홍 권사는 늘 밝고, 긍정적인 역할을 심어주었다. 그녀의 건강 사정을 잘 아는 선교사들은 그녀를 ‘여자 사도 바울’이라고 불렀다.

“수시로 아프고, 고통 받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려면 제가 건강해야 해요.”

홍 권사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가 첫 사명이자 또 그녀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했다. 그녀는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용기도 준다. 오 장로는 그녀의 가장 귀한 동역자이자 주치의로서 늘 에젤선교회와 함께 하고 있다. 오 장로는 홍 권사를 ‘철의 여인’이라고 부른다.

오 장로와 홍 권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행전을 써 내려가고 있다. 홍 권사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 오 장로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치료하면서 말이다.

“저희 관심은 오로지 영육 간에 병든 선교사와 아픈 목회자예요. 그들이 한국에 오면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품는 것뿐입니다.”

오 장로와 홍 권사가 앞으로 또 어떤 선교행전을 쓸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의 사랑을

국가와 종교의 벽 넘어 NGO '더멋진세상' 이 간다!



해외봉사자가 르완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더멋진세상’은 온누리교회 소속 국제개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다. 선교와 NGO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 국가와 종교의 벽을 넘어 가난과 질병, 재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사랑’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지구촌 이웃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큰 목표다.

NGO 더멋진세상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세계 최다 빈곤지역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지에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 ‘재난지역 긴급구호사업’, ‘영유아발달(Early Childhood Development 이하 ECD)사업’ 등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사업과 인도적 지원 중심의 북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는, 잘되고 있는 지역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선교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선교사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 먼저 들어가 선교의 길을 뚫는 것이다. 선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현지인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도록 돕고 있다. 이것이 단기간 사업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다른 NGO단체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자력화, 참여, 지속가능성을 기본원칙으로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단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5~10년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있다. 현지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지난해 8월 탄자니아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NGO 더멋진세상이 보수해 준 이슬람권 학교에서 종교시간에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 보라는 제언이 온 것. 현지인들이 조금씩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4월 24일은 NGO 더멋진세상 후원하는 날

NGO 더멋진세상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4년 9월 필리핀 비농안안 섬마을에 교회를 건축했고, 11월에는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에 있는 ‘Aderp교회’를 리모델링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진으로 무너진 네팔 고르카 지역의 ‘나레스위교회’와 ‘샤울리교회’, ‘결랑은혜교회’를 새로 건축했다. 이번 달에는 네팔 고레다라 마을 교회를 건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목회자들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이외에도 NGO 더멋진세상은 더멋진마을 조성사업,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활동, 영유아발달사업(ECD)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은 최빈곤 국가의 마을을 선정한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총체적 개발을 돕는다. 식수, 보건의료, 교육사업, 농업환경개선 등 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다. 이를 위하여 현지 리더십들을 초청하여 훈련을 하고 있다.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이 그 대표적 사례다. 르완다 어린이 1,000명당 76명이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고 있었다. 2013년 NGO 더멋진세상은 의사가 없는 응호망과 마을에 아동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민들의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서 급수탑 13개도 설치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도 시작했다.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양계장과 시범농장도 운영했다. 이렇게 시작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으로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이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은 영양실조,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말라리아 치료약 배급, 모기장 배포, 영양공급 사업, 모자보건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부터 세네갈 본나바 마을 자치보건소에 지속적으로 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조산소를 건축해 현지인들이 위

생적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활동은 지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전쟁, 소요사태 등이 발생한 지역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해 구호활동을 하는 것이다. 2015년 4월, 리히터 규모 7.8의 지진이 네팔을 강타했다. 이때 NGO 더멋진세상은 의료팀, 구호팀, 선교사, 현지인으로 구성된 긴급구호팀 25명을 현지로 급파했다. 긴급구호팀은 열흘 동안 1,276명을 치료했고 1,200명에게 구호품을 전달했다.

영유아발달(ECD)사업은 아동들의 연령과 발달에 따른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차세대 리더로 양육한다. 보육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번 달부터 르완다 응호망과 5개 마을 미취학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외 환우 초청 치료, 해외 리더십 초청 연수, 해외 학생 유학 기회 제공, 정부기관 사업공모, 후원자 발굴, 홍보 활동도 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고 있다. 4월 24일(주일)은 NGO 더멋진세상 약정후원의 날이다.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더 멋진 세상을 만드는 날이다.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연혁

2010년 12월 29일 법인허가 (외교통상부)
2011년 일본 쓰나미, 파키스탄 홍수, 터키 지진 피해지역 긴급구호, 지원 사업
2012년 세네갈 본나바 “어린이 생명 살리기”(CRP) 프로그램 사업
2013년 스리랑카 몰라티브 지역 전후복구사업(몰라티브 어린이교육센터 건립)
2014년 파키스탄 A마을 농수로/식수공사 완공
2015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환우초청 심장수술
2016년 KCOC 인도적지원사업 2개년 사업 선정

해외봉사자 간증



정환문 자매

처음 르완다에 도착했을 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현지인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고,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완벽하게 습득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내 감정과 생각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도 없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나는 NGO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다.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행위가 과연 의미가 있을

지 의문이었다. 어느 순간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멋진세상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 교육, 일자리 창출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도 알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나는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에서 ECD라는 교육센터 기반을 다지는 일을 했다.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일이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뻐했던 것은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사랑을 받은 만큼 나에게 다시 되돌려주었다. 내가 주지 못했을 때조차

도 다시 되돌려 주었다. 한번은 생명의 삶에서 후원하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은 감정조절이 안됐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다.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쳤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이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학습능력도 몰라보게 좋아졌다. 사랑과 교육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꼈다.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늘 생각했다. 현지에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꼭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더멋진세상의 선교 마인드가 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만약 단순한 봉사단원이거나 NGO에서 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불평과 불만이 정말 많았을 것이다. 몸이 피곤하거나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나를 왜 보내셨지?”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더멋진세상은 선교단체다. 외형적인 모습보다 본질적인 모습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 더멋진세상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기다려진다.

목표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청년들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청년들이 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있는 청년들이다. 꽃보다 아름다운 주인공들은 뮤직비디오 감독 오세훈 형제, 파티플래너 장연숙 자매, 플로리스트 함민정 자매다. 그들은 평일에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헌신한다. 각종 전도집회, 크리스마스 등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한다.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뮤직비디오 감독 오세훈 형제

여호수아공동체 영상감독 오세훈 형제는 뮤직비디오 감독이자 홍보회사 (주)슈디치 커뮤니케이션 대표다. 그는 스물여섯에 최연소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데뷔해 올해 13년차가 됐다. 주로 방송, 공연, 홍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사랑의 열매, 한국수력원자력, 밀알복지재단 홍보를 맡았고, 가수 김범수, 박재범, SG워너비, 민경훈, JOO 등 웬만한 대중가수들의 뮤직비디오 200여 편은 그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 삼성 OLED TV, 아시아나 항공 Worldwide 편, 패션 브랜드 VANS 장애인 편, 헤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빛도 지게 되었다. 벼랑 끝에서 교회가 보였다. 그도 한때는 열심히 교회에 다녔었다. 어느 순간 세상 문화에 빠져 살고 있었을 뿐이었다. 2011년 그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중국의 유명 포털사이트 QQ닷컴에서 광고를 찍고 받은 수익금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유명 가수(SG워너비 이석훈)의 제안으로 핀란드로 촬영을 갔다가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만나 여호수아공동체에 등록하게 됐다. 벼랑 끝에서 탈출하고, 신앙도 회복하게 됐다. 그는 여호수아공동체 문화(프리즘)그룹 문화사역팀장을 역임했고, 크리스천 연예인 섭외담당으로 활약했다. 지금은 직원 10명을 둔 (주)슈디치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자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직원 10명 중 8명이 온누리교회 출신 전문인들이다. 지난해에는 타지키스탄 아웃리치 현장에서 선교사 자녀(MK)들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눈물바다가 된 적도 있다.

“영상기술을 선교지에 전하고 싶어요. 아내와 함께 영상선교 사로서 활동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파티플래너 장연숙 자매

그녀의 이름은 장연숙 대표보다 ‘Anne Jang’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캐나다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배운 디자인 실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기획력과 디자인적 감각이 탁월해 각종 행사와 웨딩현장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리츠칼튼 호텔에서 주최한 ‘한국 최초의 유대인결혼식’을 맡으면서 실력을 뽐낸 적도 있다. 삼성증권, 삼성엔지니어링, 국제여성협회, 로레알 코리아 등 각종 기업 파티를 주도했고, 맞춤형 결혼식을 만들기도 했다. 혼자서 1인 3역을 거뜬히 해내고 있다.

7년 전,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자마자 사촌언니를 따라 온누리교회 길공동체에 등록했다. 그 때부터 길공동체 무대 디자인과 배너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다. 전도집회, 세례식, 추수감사절 등 교회 행사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했다. 그녀의 삶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꼭 하고 싶었던 결혼식 이벤트를 차렸는데 실패했고, 두 번째 창업한 웹디자인 회사도 중도에 그만뒀다. 지금은 세 번째 회사 ‘쿠티르 이벤트스’를 운영하고 있다. 쿠티르 이벤트스의 쿠티르(couture)는 바느질, 재봉술을 의미하는 불어에서 따왔고, 이벤트스는 행사를 의미하는 단어다. 그녀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배워 실무에 응용했다.

2012년 6월 어느 날, 미국계 유대인 다이애나가 그녀를 찾아

어패류도 비닐이 없는 생선만 먹는 것이었다. 한국인 하객들을 위해 준비한 김치에도 젓갈을 넣을 수 없었다. 모든 음식의 성분조사를 했다. 예식 전날, 유대인들의 전통 예식 ‘리허설 디너’가 시작됐다. 프랑스에서 온 랍비가 기도회를 진행하는 예식이었다. 그녀는 랍비의 일정과 동선을 모두 파악했고, 그를 위한 식단도 만들었다. 식기도 모두 새로 주문했다. 그 랍비는 예식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고, 운전도 할 수 없었다. 그를 위해 가장 낮은 층의 방을 예약했다. 그 모든 일을 장연숙 자매 혼자서 감당했다. 그렇게 유대인을 위한 예식이 순조롭게 끝이 났다.

고객과 플래너로 만난 인연이 동업으로 발전했다. 그날 이후 다이애나와 장연숙 자매는 다양한 결혼식을 진행했다. 한국에 없는 ‘맞춤형 결혼식’이 그녀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 아이디어가 됐다. 외국인 신랑과 한국인 신부의 한옥집 전통 혼례, 부모님을 위한 레트로(복고풍) 결혼식, 유치원 교사인 신부의 직업에 맞춘 놀이터 결혼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연숙 자매는 불황에도 회사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길공동체 지체들 덕분이라고 했다. 길공동체에 손재주가 좋은 자매들이 이벤트가 있는 날이면 힘을 보탰기 때문이라고.

“회사를 4년 동안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길공동체 지체들의 헌신도 큰 몫을 했고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문의 : 010-4423-3207(장연숙 대표)

플로리스트 함민정 자매

“꽃을 통해 복음을”

함민정 자매는 J4U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플로리스트다. 올 3월 이화여대 앞에 ‘플로린’이라는 플라워샵을 오픈했다. 꽃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복음도 전하고 있다. 그녀는 꽃으로 넉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일을 시작했다. 꽃꽂이 취미반, 웨딩반, 전문가반 등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복음도 전했다.

그녀는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다. 임시학원, 인테리어, 건설회사, 박람회 관련 재단법인, 웨딩컨설팅 등 다양한 회사를 다녔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작은 달란트라고 생각한 ‘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람들이 꽃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바꿨다.

하나님이 꽃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왜 꽃을 보면 환하게 웃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플라워샵을 오픈하게 됐다. 플라워샵 플로린 오픈을 준비하면서 꽃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졌다. 그녀는 꽃을 통해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비전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꽃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복음과 웃음을 선물하는 꽃을 만들고 싶어요.”

문의 : 02-363-3791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영상선교사를 꿈꾸며”

라 등의 50여 편 광고도 그가 만들었다.

수원대학교 연기과에 입학했지만 그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다. 교수도 연기보다는 연출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 제안이 그가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입문한 계기가 됐다. 학교 가는 날보다 방송현장에서 몸 쓰고, 영상을 찍는 날이 더 많았다. 그에게 뮤직비디오 제작을 가르쳐 준 사수는 홍종호 감독이다. 홍 감독은 90년대 가장 유명한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찍은 사람이다. 그가 남들이 10년 동안 쌓을 경력을 1~2년 안에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다. 인생의 정점을 찍은 것 같았다. 회사 사장으로부터 비싼 외제차도 선물 받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속된 말로 ‘잘 나가던 놈’이었다. 무서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이 없었다. TV만 틀면 그가 만든 뮤직비디오가 나올 정도였다.

“대기업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당시 연봉이 1억이 넘었습니다.”

절묘한 찬스까지 왔다. 그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그때는 몰랐다. 한 영화사에서 영화를 찍자고 제안했다. 흔쾌히 수락하고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 영화사로 발길을 돌렸다. 그 선택이 추락의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처절하게 알게 되었다.

“3개월 동안 작가와 단 둘이서 먹고 자면서 글만 썼어요. 나머지 2개월은 사람 구경하기도 힘든 시골에서 콘티 짜고, 그림만 그렸어요. 그런데 그 영화제작이 물거품이 됐어요.”

우울증이 찾아왔다. 먹고 살 길이 희미해졌다. 더 이상 아무

“맞춤형 결혼식 전문가”



왔다. 장연숙 자매에게 재정과 아이디어를 줄 테니 유대인을 위한 결혼식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장연숙 자매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유대인 결혼식을 준비했다. 유대인 결혼식이 생소했고, 유난히 까다로운 주문이 많았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르는 음식을 ‘코셔’라고 하는데, 돼지고기, 갑각류를 먹을 수 없고,



선교사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 보내기

1. 선물 준비 방법

- 1)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가 주관하여 각 다락방이 준비합니다.
- 2) 주소확인 :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 합니다. (국내에 계신 선교사 포함)
※ 보안지역에 계시는 선교사에게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
- 3) 편지쓰기 :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며, 순원들이 돌아가며 적는 방법도 좋습니다.
※ 편지에 반드시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의 주소, 전화, 이메일을 기록하여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4) 선물준비
①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② 실용적이며,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 ③ 우체국 기준에 맞게 소포 포장을 하시면 됩니다.
- ④ 작은 선물이라도 선교지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 ⑤ 해외 송금보다는 현지 선교사님 가정 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 ⑥ 현지 도착 날짜를 고려하여 4월 중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2. 선물 준비 시 고려사항

-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 ① 자녀는 고3 및 12학년(1998년생 이후 출생자)까지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님들께 '선교사 자녀 선물보내기 주소와 명단'을 메일로 발송)

- ②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 (자녀수와 연령 확인 필요) : 학용품 (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싸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 옷, 모자, 책 (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 3) 보안지역에는 기독교 관련 음반, 서적, 비디오, 액세서리 등의 품목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안지역 유의사항

- 1) 보안지역이란?
※공산권, 이슬람권 등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금하고 선교사로는 비자가 제한되는 지역
(선교사의 사역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보안지역으로 보낼 경우 기독교관련 선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편지 내용에도 기독교 관련 용어를 삼가시고, 사용하실 경우 보안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 2) 보안지역 안내
①공산권 - 중국, 베트남
②이슬람권 - 중동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동유럽 일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이집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튀니지 등)
③힌두교권 - 인도
④불교권 - 미얀마, 라오스
⑤각 공동체는 기록된 선교지 주소로 소포 포장을 하여 선물을 발송합니다.
보안지역(수신주소가 선교 단체로 되어있음)의 경우에 소포 포장을 하여 소포비와 함께 선교 단체로 발송합니다.
(단 예수전도단(YWAM)은 직접 공동체에서 발송합니다.)

4. 문의

- 1) 각 공동체 및 캠퍼스 선교사역자

- 2) 2000선교본부 : 최휘준 간사 02-3215-3208 abc12@onnuri.org apost.go.kr나 우체국 대표 전화 : 1588-1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5. 우체국 요금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 조건/통관/우편물 중 추적(행방조사) 등)은 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 : <http://www.kore->

6. 선교단체 연락처

단체	주소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449-82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3층	02-794-1063
비전빌리지 훈련팀	(449-82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2층	031-331-8100
경배와 찬양	(140-240) 서울시 용산구 독사평대로 11길 54번지 (구주소-서빙고동180번지)	02-796-9700
바울 선교회	(561-80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61 2층	063-254-8418
빌리온 선교회	(151-85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58길 20 2F	02-879-1191
알타이 선교회	(135-012)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86-4번지 지아나빌딩 2층	02-576-8503
중동 선교회	(138-16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156-3 한일빌딩 (선교제일교회) 4층 401호	02-402-2062
BEE KOREA	(156-8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길 18	02-822-9480 (내선 102번)
Cornerstone (모퉁이들)	(135-66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 우체국 사서함 8호	02-796-8846
FMnC 선교회	(137-824) 서울 서초구 효령로 32(방배동 오션빌딩) 3층	02-848-6251
GBT 선교회	(431-81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5-29 신한대부 오피스텔 406호	031-421-5324
GMF 선교회	(158-803)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길 46-25 (구주소: 목2동 231-169)	02-2653-4270
GMP 개척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4길 25	02-337-7191 070-4066-0114
GMTC 선교회	(158-80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길 78	02-2649-3197
GO 선교회	(314-080)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549 2층	041-852-1040
GP 선교회	(138-2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	02-443-0883
HOPE 선교회	(135-610) 서울특별시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	070-4006-5300
Inter-Coop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634 열방센터	070-8787-8807
InterServe 선교회	(463-94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코오롱트리 폴리스 A동 1206호	070-4352-6510
OM 선교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4-60 세션회관 3층	02-6925-3333
OMF 선교회	(137-82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9길 21 호연빌딩 2층	02-455-0261
UPMA 선교회	(153-8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76 한국세계선교협의회 4층 UPMA	02-815-4052
WEC 선교회	(137-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1길 7-17 송진빌딩 4층	02-529-4552
YWAM(예수전도단)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7나길 14 (문의가능, 물품 공동체 직접 발송)	02-322-0563

기교

“선교사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매년 어린이날 마다 선교사 자녀들을 기억해주시고, 선물을 보내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기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타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남모르는 어려움과 아픔이 많습니다. 낮은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잦은 이사와 전학으로 친구를 사귀지 못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에 대한 원망, 정체성 혼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겹쳐 방향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작은 정성과 사랑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자신들을 기억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교국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교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소명으로 무장된다면 예수님을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작지만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어린이날이 될 것입니다.

/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감사 편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라오스에 살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할 뿐입니다. 특히 마포공동체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년 생일 때마다 정성스럽게 쓴 카드와 선물을 보내주셔서 큰 위로가 됩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과 후원자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곤 합니다. 한번은 이곳에서 구할 수 없는 과자를 보내주신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던 과자였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해?”

아이들은 여기가 살기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먹지 못한다는 사소한 이유도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러왔지”라고 대답해 줍니다. 아이들도 “맞다. 그렇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을 섬겨주시고, 아이들까지도 챙겨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과자를 받고 기뻐하듯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 썬디 선교사 부부

러브소나타 10주년 감사 및 동경대회 설명회

이재훈 목사, 오카와 목사 등 한일교계 리더십 60여 명 참석



러브소나타 10주년 감사 및 동경대회 설명회에 모인 한일교계 리더십들.

러브소나타 집회 10주년 감사 및 동경대회 설명회가 지난 4일 도쿄 오차노미즈 크리스천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훈 담임 목사, 일본비전교회 리더십, 일본두란노 대표 이운구 장로, 야마토갈보리채플 오카와 츠구미치 목사 등 한일 교계 리더십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난 10년 동안 러브소나타 집회를 이어올 수 있었다”면서 “세계선교 역사에

기록될만한 러브소나타 집회는 온누리교회만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일본 교계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오카와 츠구미치 목사는 “지난 10년 동안 온누리교회에 정말 많은 신세를 졌다”면서 “폐쇄적인 일본선교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러브소나타 집회는 2007년 3월 오카와를 시작으로 지난해 오이타까지 총 23회에 걸쳐 막 올랐다. 내년이면 10주년이다. 선교사의 무덤

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단일교회가 10년 이상 대형집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러브소나타 서울 본부는 ‘러브소나타 10주년 블레스 재팬’ 대회를 2017년 7월 25일과 26일 도쿄국제포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선교분과위원회 정대서 장로는 “더 많은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현주 joo@onnuri.org

4월 비전헌금 ‘한국 해비타트’

보금자리 선물하는 비영리국제단체

4월 비전헌금은 주거복지 비영리 국제단체 ‘한국 해비타트’를 후원하는데 사용된다. 해비타트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선물하는 사역단체다.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는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비전으로 1976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국제단체다. 한

국 해비타트는 1994년 양주에서 시작됐고, 21년 동안 국내외 5만 6천 가구에 보금자리 선물을 했다.

한국 해비타트는 국내에서는 집 짓기, 집고치기, 재난대응 등을, 해외에서는 집짓기, 재난피해 긴급복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13기 북한선교학교 수강생 모집

4월 12일 ~ 5월 17일 서빙고 비전홀

13기 북한선교학교가 4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4월 12일 이호 목사(통일한국리더십아카데미 대표)가 북한선교 및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 19일 전우택 교수(연세의대교수)가 북한 사람의 이해, 26일 양운철 박사(세종연구소

부소장)가 북한경제 현안과 통일준비, 5월 3일 최광 목사(황금종교회)가 탈북자 복음화 사역, 10일 이태희 목사(미국변호사)가 북한의 실상과 인권, 17일에는 김성욱 기자(리버티헤럴드 대표)가 북한을 향한 크리스천의 사명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김정섭 총무 010-3301-289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CGNTV 개국 11주년 기념행사 개최

이재훈 목사 “더 많은 영혼 살리는 방송되기를”



지난 3일 CGNTV 11주년을 맞아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다.

CGNTV 개국 11주년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지난 3일, CGNTV는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CGNTV’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

최했다. 이날 CGNTV는 크레마스튜디오(테마별 이미지 사진촬영), 캘리그라피, 생일 떡 나눔, 개국 11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자이머시 인디아’를 방영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앞으로도 CGNTV가 온 세상에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방송이 되기를 바란다”며 개국 11주년을 축하했다. CGNTV 후원자 양지연 교사(서빙고 고등부)는 “CGNTV 후원자들이 더 늘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GNTV는 지난 11년 동안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질 높은 콘텐츠로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선교지에 설치한 CGNTV 안테나가 1만 대를 돌파했다. 올해는 미디어 접근성이 높은 웹드라마, 미니휴먼다큐, 세로비디오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홈스쿨 가이드’ 세미나

선교사 자녀를 위한 ‘홈스쿨 가이드’ 세미나가 4월 16일(토) 오전 9시30분 Acts29비전빌리지박모세홀에서 개최된다. 홈스쿨에 관심 있는 선교사 부모, 예비선교사, 성경적 자녀교육을 원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김남영 목사(한국기독교홈스쿨협회 대표)가 강의한다.

홈스쿨은 성경을 가장 중요한 교과목으로 삼고 부모가 자녀를 교육한다.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진로를 찾는 교육이다. 선교사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언어문제, 정체성 혼란 등에 대한 해결 방법도 모색한다. 4월 12일까지 홈페이지(www.tim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메일(mkedu153@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참가비는 1인원(부부는 1만 5천원), 선교사는 5천원.

문의: 한성철 선교사 070-4464-887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이스라엘 성경공부 수강생 모집

KIBI에서 이스라엘 성경공부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4월 16일부터 6월 11일 까지 7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15분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

린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아이스쿨, KIBI 홈페이지(kibi.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일까지 3만원, 당일 등록(16일)은 7만원이다.

학생(대학원생 포함)은 5천원.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문의: 이영숙 권사 010-8835-4255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4월 17일 / 시간: 주일 오후 3:30 /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드림홀

대상: 3월 1일부터~3월 31일까지 등록한 성도

강남A 안정현 윤병훈 이지원 하혜은 강남C 김승원	이태길 최수경 최진호 최필규 강남D 이선영 조준환	분당A 이미소 분당B 김윤희 이승례 이은정 이정호	산본안산 오상훈 서초A 이미종 이분옥 황인주	서초B 이경진 이정호 정경숙 서초C 오정미 김세영 김은경	김효진 유상훈 조종행 서초D 신지혜 신현명 양성자 김동휘	김미정 박나리 박병석 김두환 김선주 박재숙 이재호	홍한영 양재 고경희 김두환 김선주 박재숙 신봉섭	이세아 이승률 장유정 전용수 정연홍 조선진 주미옥	푸른누리 황미선
---	---	---	---	--	--	---	--	---	-------------



오카야마 기 · 도 · 제 · 목

- 4월11일(월)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현지 교회들이 연합해 부흥하도록
- 4월12일(화) 일본을 변화시킬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 4월13일(수)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화답하도록
- 4월14일(목) 이재훈 목사가 말씀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4월15일(금) 모든 일정에 기름 부어주시고, 봉사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 4월16일(토) 러브소나타를 통해 구원과 부흥이 일본 전역으로 이어지도록
- 4월17일(주일) 80개의 협력교회와 2천명의 전도대상자들이 참석하도록

■ 대학청년부 프렙(거지전도여행) 간증



/ 박소은 자매(하늘공동체)

참 감사한 1박2일

올해 프렙(거지전도여행) 일정을 듣고 신청을 망설였다. 프렙에 대해 좋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FA선교사로 떠나는 친구의 기도카드를 보게 되었는데, 먼 땅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 친구의 결단 앞에서 프렙을 피하고 싶어 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어렵게 결정한 프렙이라 많은 것이 기대됐다. 한 주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하며 조원들과 함께 프렙을 준비했다.

프렙 첫날 토요일 오전, 개화산역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 기도하고 나서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감사하게도 마음이 맞았다. 먼저 거처로 삼을 교회를 정하고, 목사님께 지역전도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개화산역에서 얼마 가지 않아 ‘정신사랑의 교회’가 눈에 띄었다. 정신사랑의교회 목사님께 어렵지 않게 승낙을 받아 그곳을 거처로 정했다. 그리고 인근 시장으로 노방전도를 나갔다.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전도를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미 신앙을 가지고 계셨다. 참 감사했다. 다음 행선지를 찾던 도중에 동네지도가 보였다. 지도를 확인해 보니 마침 그 근처에 공원이 있었다.

공원을 다음 행선지로 결정했다.

공원으로 이동하는 길에 어르신들께 교회 홍보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대화도 했다.

“교회 나가야지, 나가야지...”

초점 없는 눈으로 몇 번이나 읊조리시던 할아버지, 시골에서 올라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 외롭다고 하셨던 아주머니 등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쉽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내가 원망스러웠다. 공원에 도착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노방찬양을 전했다. 마침 공원을 지나던 한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짧은 설교를 해주셨다. 앞으로는 날마다 전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돌아오던 날에는 정신사랑의교회 청년부 지체들과 교제했다. 서로의 신앙과 고민을 나누었다. 정신사랑의교회 청년부 지체들을 하늘공동체 예배에 초대했다. 우리가 프렙하는 동안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 없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의지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다. 참 감사한 1박2일이었다.

■ 기고



/ 박미선 성도(양지 온누리교회)

내가 경험한 ‘홈스쿨’

우리 부부는 10살 아들, 9살 딸, 그리고 7살 막내아들을 홈스쿨(Home School)로 양육하고 있다. 시작한 지는 1년 10개월 정도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거룩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말과 행동이 점점 거칠어졌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이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보면서 염려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차세대 ‘예수님의꿈 아이’ 영역에서 실시한 부모교실을 통해 홈스쿨을 알게 되었다. 신선한 도전이 되었다.

진새골 온누리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 홈스쿨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자녀들을 홈스쿨 시키면서 하나님의 교양으로 양육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홈스쿨을 연습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쥬슈아 홈스쿨 아카데미’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 매주 월요일 경기도 양평에서 모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품성과 성경 중심의 통합교육 커리큘럼 ‘로고스북’으로 성품, 역사, 과학, 사회, 지리 등을 배우고 있다. 오후에는 독서모임, 축구모임 등을 하고, 엄마들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책자를 공부하면서 서로의 연약

함을 나누고, 격려한다. 주중에는 집에서 Q.T와 성경읽기, 성경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올해 우리 아이들은 성경 365 통독을 목표로 힘쓰고 있다. 첫째 성현이는 친구약 통독을 목표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다. 구약 예레미야와 신약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다. 둘째 선하도 친구약 일독이 목표다. 요즘 성현이는 ‘아인스월드’를 견학한 이후 건축에 푹 빠져 있다. 건축과 관련된 책들을 도서관에서 찾아와서 읽고 있다. 또 인터넷으로 세계의 마천루를 조사, 정리해서 파워포인트도 작성하고 있다. 무엇인가에 푹 빠져 깊이 탐구하며 기뻐하고 있다. 행복한 공부, 자기주도 학습을 절로 배우고 있다. 선하는 책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하고, 레고 박사인 셋째 지현이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레고 블록을 만든다.

아이들이 여러 진로나 대학 입시에 대한 걱정이 없다. 모든 것을 후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친히 채워 주시리라 믿는다.

홈스쿨가이드 세미나: 4월 16일 Acts29 비전빌리지

문의: 070-4464-8874

■ CGNTV 후원 독려 메시지



/ 정현숙 권사(CGNTV 후원자)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되자!

교회에서 CGNTV를 접하고 집에 설치했다. CGNTV를 볼 때마다 마음 속 갈급함이 해결되는 기분이었다. 그 느낌이 정말 좋았다. CGNTV에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영상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 그 영상 속 선교사님들이 CGNTV 안테나가 달릴 때 울면서 너무나 기뻐했다. 그 모습이 마치 천국 같았다.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의 가족들이 CGNTV 안테나가 달리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공감이 되고, 가슴 깊이 새겨졌다. 며칠이 지나도 영상 속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뇌리에 잊혀지지 않았다.

우리 가정은 믿지 않던 가정이었다. 내가 가장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 남편은 2년 전에 세례도 받았다. 오랜 기도 끝에 맺은 열매였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지를 생각하다 지난번 보았던 CGNTV 영상이 떠올랐다. 정말 적은 물질이지만 CGNTV 드림은 안테나를 후원하게 됐다. 더 많은 곳,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CGNTV를 접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후원했다.

지난해에 아들이 결혼하면서 올해 4월에는

손녀가 태어난다. 아들은 이에 대한 감사헌금을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아들에게 CGNTV를 후원하라고 권면했다. 나를 통해 CGNTV에 감사헌금을 하게 된 아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도 드림은 안테나 후원을 권면하고 싶다. 우리는 좋은 방송을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귀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선교지에서 접하는 CGNTV는 영적으로 갈급한 선교사님들에게 기름 한 방울 같은 영향력이다.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듯이 갈급한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만큼 큰 힘이 어디 있을까.

CGNTV는 선교지에 등불을 켜고 있다. 선교사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이 된다. 적은 힘을 보태서 큰 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안테나 한 대가 주는 메시지는 선교사님들에게 단비가 되고, 옥토를 만들어 줄 것이다. CGNTV 드림은 안테나를 통해 성령의 힘을 얻고, 가뭄이 해갈 될 것이다. CGNTV 드림은 안테나가 10만 대로 확장되기를 기도한다.

■ 기고



/ 황성욱 성도(영어예배)

“이웃사랑선교회를 도와주세요”

한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주택가 주변에도 유흥가가 있다. 그렇다보니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유흥가를 지나다 니게 된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길 바닥에 뿌려진 유흥 전단지도 엄청나다.

우리나라의 어두운 단면 중 하나가 성매매다. 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다. 성매매가 뿌리 뽑히지 못하는 이유는 수요 때문이다. 잘못된 성교육과 성매매 여성들의 실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을 구매하게 된다. 성매매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국 여성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성들까지도 성매매 피해를 당하고 있다. 사실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다 영어예배를 통해서 LNM(청량리 성매매여성 구제 선교회), 새날(가출 청소년 보호센터), 두레방(아시아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센터), 위안부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알게 되었다.

나는 LNM사역을 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일지를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간접적으로 청량리 성매매 여성들의 삶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상처가

많고, 마음이 여린 여성들이었다. 청량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웃사랑선교회 최선 목사님은 죄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런 최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다.

최 목사님은 하나님을 갈구하고, 기도하면서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평소 교회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LNM 사역을 알게 해주신 것 같다. 성매매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도울지 항상 고민이다.

이곳에는 더 많은 동역자, 후원, 기도가 필요하다. LNM에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사람 1명, 목사님 3명, 사모님 3명뿐이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 계속 사역을 이끌어 가고 있다. 앞으로 LNM 사역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많은 성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글을 읽는 성도 한 명이라도 LNM에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장로칼럼

부모가 해주는 일대일 제자양육



육동건 장로
(일대일위원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새벽녘에 잠에서 깬다. 무서운 꿈을 꾸는 것이다. 엄마를 다급히 불렀다.

“엄마!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에 갈 수 있어?”

엄마가 대답했다. “그럼, 당연히 천국에 가지.”

아이가 다시 물었다. “엄마가 하는 말 말고, 성경에서 찾아줄 수 있어?”

엄마가 다시 대답했다. “지금은 자야하니 까 아침에 찾아줄게”

아이가 실망한 듯 말했다. “이런 건 천천히 알아도 되는 거야?”

엄마의 정신이 반짝 들었다. 아이의 말이 마치 성령님께서 꾸짖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즉시 책장에서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교재를 꺼내 ‘구원의 확신’ 편을 폈다. 구원의 확신을 이해시키고 입으로 고백하게 한 후에야 아이가 다시 평안해졌다. 이 이야기가 소설 같은가? 아니다. 절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아이들도 죄와 죽음을 생각한다. 때로는 어른들보다 더 본질적이다.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고, 엄마에게 거짓말한 것 등 어른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아이들은 쉽게 정죄감에 빠지고, 영원한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고, 삶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야 하

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린 자녀들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것인가? 그것은 가정의 몫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버지의 몫이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성경의 교육적 명령을 따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사명에 순종하는 일이다 (신 11:19).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일대일 제자양육은 평생 아름다운 추억으로 깊이 간직될 것이다.

뿐만 아니다. 그 자녀가 장성하여 자녀를 낳았을 때 다음 세대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이고, 믿음의 계승이다. 어린 자녀와 함께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자녀가 장성하여 그의 자녀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기까지 30년이 걸린다. 어찌 보면 가장 길고, 가장 느리며,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비효율적인 재생산 방식일지 모른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재생산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가르치는 사람의 축복이다. 부모가 해주는 일대일 제자양육도 마찬가지다. 자녀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배우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회복될 것이다. 아버지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된다. 이 모든 역사는 자녀와의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성도 간의 수평적 일대일 제자양육과 더불어 세대 간의 수직적 일대일 제자양육도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30년 뒤를 생각하면서 씨앗을 뿌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일대일 사역의 비전이다.

권사칼럼

전도자는 마중물이다



박인숙 권사
(온누리전도학교)

마중물은 펌프질을 할 때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먼저 한 바가지 정도 붓는 물을 말한다.

손님이 올 때 주인이 나가 마

중하듯 새로운 물을 마중하는 물이다. 전도를 하고 싶어도 아직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망설이는 크리스천들이 있다. 전도자는 마중물이다. 개울가의 물이나 빗물이라도 한 바가지 넣으면 지하수는 올라오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숙하고, 완전하면 좋겠지만, 인격과 자질이 부족해도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무조건 펌프질한다고 물이 나오지 않는다. 헛수고만 하는 것이다. 반드시 마중물을 한 바가지 정도 넣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온다. 전도도 마찬가지다. 씨를 뿌려야 거두고, 마중물을 집어넣어야 물이 나온다.

전도하다보면 “난 종교에 관심이 없다”면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이 사람은 안 되겠어”하고 포기해야 할까. 아니다. 마중물을 넣기 전에 ‘이 우물에는 반드시 물이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물이 깊을수록 깨끗하고 순수한 물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일수록 전도를 기다리고 있다. 영혼이 메달라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전 3:11).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삶

을 바라보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영원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고 싶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처럼 영원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혼의 목마름이 있지요” 하면서 마중물을 넣으면 그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펌프질을 할 때 하는 등 마는 등하면 물이 잘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진정성으로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지?”, “내가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전도자의 임무이다.

마중물을 넣고 성실하게 펌프질하면 “사실 옛날에 교회에 다녔는데 먹고 사는 데 힘들다 보니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거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잘 믿는 사람이 있다 나만 보면 다시 믿으라고 한다”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할 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 물이 팔팔 나온다. 전도도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 차츰 내공이 생기고, 근육이 붙는다. 자신의 할 수 없음 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크게 보고, 나의 약함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여지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

영원에 대한 사모함,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붓자.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솟아날 것이다.

서빙고 : 010-4572-7373

양재 : 010-9001-6243

신앙에세이



박성천 목사
(평택 온누리교회)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히딩크 감독을 기억할 것이다. 그는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던 감독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가 남겼던 말 중에 그를 가장 잘 웅변하는 말이 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가진 욕구이자, 갈망이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이 욕구와 갈망을 드러낸다. 이 욕구와 갈망은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

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3-14).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인생의 허무함과 목마름을 알아보고, 해결해주셨다. 그 목마름을 해결 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또 다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과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

이스라엘은 저녁 때 서쪽에서 부는 강풍이 지중해의 수분을 머금은 공기를 운반한다. 그것이 밤이 되어 냉각되어 새벽이슬로 내려앉는다. 강우량이 부족하고, 태양이 작열하는 사막지역에서도 식물이 죽지 않고 자랄 수 있는 이유다. 우리는 이것을 ‘새벽이슬’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청소년과 청년을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지칭하는 표현이다.

새벽이슬과 같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한다. 새벽이슬은 자신을 희생하고, 나누어서 다른

생명을 살려낸다.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있다. 배 교수는 오염된 물을 마셔서 온갖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프리카 부족들을 찾아다닌다. 그리고 현지에서 구하기 쉽고 만들기 쉬운 정수 필터를 만들어 선물한다.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그 필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필터 만드는 방법을 전수받은 청년들이 또 다른 부족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배 교수는 신문 인터뷰(국민일보 2012.12.27자)에서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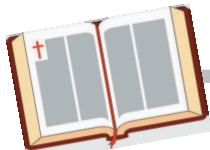
“음지에 있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저는 성경에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나누며 살 때 사회가 밝아질 것이라고 믿어요.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1%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축복을 99%의 못 누리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복음과 소망을 얻은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누리교회에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과 청소년들로 보내주셨다. 그들이 ‘흘려보내는 물’의 삶을 살도록 사도행전적 비전을 주셨다. 필자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신명이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신 7:7).

새벽이슬 같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세상 안으로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에 움츠리는 삶을 거부하고, 새벽이슬과 같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자!

청춘아, 겁먹지 마!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다

세상의 헛된 종교와 철학과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조차도 하나님을 도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는 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셋째,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인간이 찾아 만날 수 있고, 인간 안에 거하시며, 인간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였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26-28절).

당시 사람들은 신은 만날 수 없고, 인간에게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과 신은 별개라고 생각

했습니다. 에피쿠로스학파는 인간과 신은 완전히 별개이고, 스토아학파는 인간과 신이 붙어있다고 했습니다. 인간과 만물이 모두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인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간을 지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모르는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주시고, 인간과 교제하고, 만나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했는데 이것은 당시 유명한 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에피 데미데스’라는 시인과 ‘아라투스’라는 시인의 작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에피 데미데스가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당신은 제우스신을 의미합니다. 또 아라투스가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분도 제우스신을 뜻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제우스신의 힘으로 살고, 제우스신의 자녀라고 한 말은 틀렸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만

나주신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표현들이었기 때문에 귀가 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철학과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 사람들과 접촉할 때도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변증방법입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30절).

이제 하나님에 대해 들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물질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준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었고, 어떤 사람은 더 듣고 싶어 했고, 어떤 사람은 믿었습니다. 믿는 자는 소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세상의 철학과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소수지만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시대에도 아테네와 같은 많은 신전과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보이는 신전은 없지만 더 교묘한 신전, 더 교묘한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테네를 보며 거룩한 분노를 품었던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 우상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생겨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가정사역

박규현 강영옥
이진영 정한미
정연미 나지원

강서

고희경 김금숙
김자현 문남주
윤병수 박희준

강촌

권성훈 김민찬
김귀영 김순덕
김미혜 선유숙
한승희 심갈섭

고양은평

고창득 김승동
나기숙 함해정
박창희 홍정숙
윤소영 주진순
한재원 진명선

관악금천

김은정 고영임
김효선 이명신
서상원 노홍구
이수민 한윤미
진정미 홍형민

광명

김신은 박예순
임명신 김정희

김포

김지은 황호경
유일신 지성자

노원

김대선 김진서
장정수 최 명
정수진 강정숙
조지연 이해옥
팽해정 이상명

동대문중앙

김옥희 노정자
김정옥 김윤경
엄인수 류운중
최광숙 황원희

동작

김윤희 이정희
엄은숙 박윤희

마포

김윤경 최숙희
김윤경 최숙희
서유경 장순미
신해정 전희복
이성희 조선희
정재영 임영애

북누리

최순오 김계숙

서대문

김수정 김순덕
김정애 김연신
손재원 강은철
원종혁 강은철
이은미 양미숙

서빙고

남은아 손은경
이원주 이정금
차현주 권해령
하재원 오기호

성동광진

강민정 전명순
권정택 이순옥
김소연 최미영
손정식 양형식
우준경 김영주
이선희 안정미
이정미 이은주
임상균 이선규
장희윤 문충실

성북

김은영 여민숙

김정언 오경환

박미혜 황승리
박은혜 정삼희
이성재 김준철
정하영 이재신
채은숙 권광련
최대건 이광희

신용산

김영순 박미경
김정옥 최종희
신효정 박미선
이서현 박수연
이승은 하선희
이승희 장성란
이환웅 이왕일
임한규 황준식
조형석 남영표
주이숙 이은아
최영환 장윤호
최종해 임상범

여의도

김정수 김영미
이미영 이영숙

영등포구로

강민지 유명주
김명호 심양섭
김용식 이선규
남기람 김은화
윤민영 박은숙
이혜진 박경숙

용산

권은경 김수경
이상숙 문명옥
김명연 장승훈
김정현 신수하
변두섭 김이성
이은숙 김술라
최은정 양은선

이수

김유미 송석인
정미현 윤지영

이촌

김형진 나종삼
백혜경 김정숙
이보라 정순임
정재순 김인기
지은진 박세진

일본어예배

권카린 임충남
권혁찬 조소찬
ANDO MARU RE YOSHIOVA

일산

김소희 안치옥
정정희 이명선

중국어예배

남희경 박준기
WU SHUME 임정자

중종로

김동현 이덕호
문초송 주수경
박정현 이희영
박재한 김영한
박지연 우인숙

천양사역

최경열 이호천

특별한초대

김은정 선영미
양수연 강은실
천혜린 이정선

한강

김예식 이경찬
김은숙 이경주

기타

김미경 박경희
김은우 이재우
김지광 김준용
배은순 이희문
이영은 김주경
정경일 한상규
정길수 최정규

정혜진 신은아

최승이 강경희
최옥광 한병택
최형록 연재욱
최희선 박미경

OEM

신동빈 유은규
조소영 최숙경

S브릿지

고진호 전치욱
김동진 김민영
김정진 김정문
김지혜 이성옥
류수연 이상아
박인혜 정옥희
배수경 김 윤
윤은혜 이윤미
이선진 이덕호
이정호 박민규
정순금 홍경화
정재욱 심상보

분당A

김수희 이귀형
송주영 김준배
이진호 전용수
조철진 김형석

분당B

김대두 방은식
김태성 권혁기
조경숙 이영미

산본안산

지승준 김경학

강남A

권순호 김명숙
김은희 김민영
김현정 이소현
유영숙 민경애
이은숙 장경숙
조정영 김미희

강남B

권용범 이기만
김한순 신지영
신현영 전해경
이미현 이경희
이찬영 이태순
최자경 정도옥
최 진 이일진

강남C

강보경 박성혜
문종돈 김선일
박성우 이영란

심경희 정수선

여민진 이혜주
이재성 이민관
이재준 이백권
홍순모 이상두
홍해경 임혜옥

강남D

나은희 박주원
동우진 전재홍
문원주 이옥상
박원옥 이상영
장은혜 조윤정
정다운 임승자

과천의왕

박인화 이정권
변진숙 김명자
서유경 정영자

송파

신민수 권형택
정상우 이광희
정승은 김완선
조미령 김점숙
최숙자 최미혜
홍한영 강승구

안양평촌

신나라 김진옥
연 일 배병준

양재

강영준 엄미현
김정숙 강은주
김태은 정은희
남광현 모호숙
박선정 김유정
심현우 박금봉
오기석 김기덕
유경화 이순자
이영희 강경희
조금옥 최보출
하찬진 신혜원

서초A

김문정 김관유
김태호 엄태관
노현숙 이영자
박한우 최재인
원성준 홍정화
이연정 윤성자
정혜선 노정미
최창순 권용봉

서초B

김동현 양상식
양동식 한상규

이훈정 방혜영

정필용 심호우

서초C

김세화 김수연
박광문 김홍태
이운연 이경남
임동희 박명희
임혜연 강현주

서초D

김건희 이광재
김경식 이성오
김조룡 김진주
남성현 이재성
양준성 홍동호
우현정 김선경
윤지인 류현수
이승재 이상옥
임지영 이현숙
조용남 이신준

Bridge33+

강승림 독고춘하
김성준 편정범
김성희 김인숙
김윤정 이경희
박은선 정복순
박은혜 정성원
심미나 오영신
이우선 최준수
이우호 이유간
장민구 이승복
정일용 조연익
지영철 이강신

Harmony

김민정 유수인
정수진 성경숙

Point5

강예지 김미용
남다현 이복음
민창기 조영의
백 설 이미경
이영미 김은희
이재원 이남형
조아라 정지연
최호준 구본영
하정민 이현래

대청

김갑원 김은유
박선영 이은하

박지연 오명희

임준성 박구병

길

김다영 이선영
김진규 권영철
노주희 최혜리
산필여 정경희
이종성 김창현

여호수아

고기영 윤희미
고석상 김영삼
김미루 호종일
김수향 이소현
김승혜 박신영
박수경 서연희
손윤경 임영희
송현정 유미라
오단비 김유영
오영민 김영삼
유상균 정제범
이광웅 김영우
이종원 최준영
임선아 아숙경
정다운 이혜옥
정형진 이성권
주형진 김 준
최예서 김희순
최윤지 장소영
한정호 허광수
황은혜 김정선

요셉

김민아 최장희
정성욱 김승한
정태화 박진희

하늘

김 진 이미림
윤영은 이경숙
하선결 한상규

허브

양주희 박봉옥
임주은 김영선
장수진 박양순

푸른누리

김은정 이은주
차혜원 이바름

특별한초대

권재현 조 민
김보화 김선영

하나

손이정 김정아

Bridge33+

강승림 독고춘하
김성준 편정범
김성희 김인숙
김윤정 이경희
박은선 정복순
박은혜 정성원
심미나 오영신
이우선 최준수
이우호 이유간
장민구 이승복
정일용 조연익
지영철 이강신

Harmony

김민정 유수인
정수진 성경숙

Point5

강예지 김미용
남다현 이복음
민창기 조영의
백 설 이미경
이영미 김은희
이재원 이남형
조아라 정지연
최호준 구본영
하정민 이현래

대청

김갑원 김은유
박선영 이은하

박지연 오명희

임준성 박구병

길

김다영 이선영
김진규 권영철
노주희 최혜리
산필여 정경희
이종성 김창현

여호수아

고기영 윤희미
고석상 김영삼
김미루 호종일
김수향 이소현
김승혜 박신영
박수경 서연희
손윤경 임영희
송현정 유미라
오단비 김유영
오영민 김영삼
유상균 정제범
이광웅 김영우
이종원 최준영
임선아 아숙경
정다운 이혜옥
정형진 이성권
주형진 김 준
최예서 김희순
최윤지 장소영
한정호 허광수
황은혜 김정선

요셉

김민아 최장희
정성욱 김승한
정태화 박진희

하늘

김 진 이미림
윤영은 이경숙
하선결 한상규

허브

양주희 박봉옥
임주은 김영선
장수진 박양순

주세희 이미경

■ J4U

강보민 김세희
김수아 이향숙
김유나 김관유
김혁중 김원철
박지원 김세은
송은미 김세은
양우재 우성식

여호수아

고기영 윤희미
고석상 김영삼
김미루 호종일
김수향 이소현
김승혜 박신영
박수경 서연희
손윤경 임영희
송현정 유미라
오단비 김유영
오영민 김영삼
유상균 정제범
이광웅 김영우
이종원 최준영
임선아 아숙경
정다운 이혜옥
정형진 이성권
주형진 김 준
최예서 김희순
최윤지 장소영
한정호 허광수
황은혜 김정선

서빙고

장정화 장현희
조영균 최용환
최현숙 한수혁
황승희

안광국

목사반 목사반
강신태 서명희

오은규

목사반 목사반
김남경 김성철
김정훈 김철수
김지연 김철수
김희태 도공수
박임준 배대현
백경남 송충섭

최용준

목사반 목사반
김동관 김정자
김진용 송옥선
유백운

서빙고

장정화 장현희
조영균 최용환
최현숙 한수혁
황승희

안광국

목사반 목사반
강신태 서명희

오은규

목사반 목사반
김남경 김성철
김정훈 김철수
김지연 김철수
김희태 도공수
박임준 배대현
백경남 송충섭

최용준

목사반 목사반
김동관 김정자
김진용 송옥선
유백운

옥채연 이지현

이나래 이희문
이미나 김희경
이혜미 김주연
전수진 광금봉
정유진 윤수인
조용기 지성목
LEE KINRAE 임형중

SNS

구연모 송재용
김경준 양혜림
김하나 김미정
김하나 윤정희
김호찬 정재민
박민아 유정은
박성아 유상희
박태정 장경희
장영림 민경애
정희준 이재석

서빙고

장정화 장현희
조영균 최용환
최현숙 한수혁
황승희

안광국

목사반 목사반
강신태 서명희

오은규

목사반 목사반
김남경 김성철
김정훈 김철수
김지연 김철수
김희태 도공수
박임준 배대현
백경남 송충섭

최용준

목사반 목사반
김동관 김정자
김진용 송옥선
유백운

서빙고

장정화 장현희
조영균 최용환
최현숙 한수혁
황승희

안광국

목사반 목사반
강신태 서명희

오은규

목사반 목사반
김남경 김성철
김정훈 김철수
김지연 김철수
김희태 도공수
박임준 배대현
백경남 송충섭

최용준

목사반 목사반
김동관 김정자
김진용 송옥선
유백운

서빙고

장정화 장현희
조영균 최용환
최현숙 한수혁
황승희

안광국

목사반 목사반
강신태 서명희

오은규

목사반 목사반
김남경 김성철
김정훈 김철수
김지연 김철수
김희태 도공수
박임준 배대현
백경남 송충섭

최용준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분당

월요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종 팀장(010-8885-6757)

S브릿지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9:0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 안산M센터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방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파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예배 14:2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10:30~12:30

-셔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주일 7부 예배 상어 모집

대상: 온누리 교인

연습시간: 주일 오후 7:15~8:30

예배시간: 주일 오후 9:00~10:10

문의: 김미경 팀장(010-4876-1480)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채용공고

모집: SVC부 경영지원팀 팀장(35세~55세)

자격: 세례교인, 영업마케팅 또는 경영,

기획 관리 경력 5년 이상 등

접수: bible81@onnuri.org

상세 모집요강은 잡코리아 'SVC부 경영

지원팀 팀장 채용' 공고 참조

미얀마 단기의료선교 팀원 모집

일시: 7월9일~7월 14일

장소: 미얀마 양곤

모집대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봉사자(모든 분야)

문의: 김호경(010-4369-1211)

두란노서원 직원 채용 공고

BS교재팀 채용

모집: 편집 디자이너(1명)

경력: 경력 3년 이상 8년 이하

자격: 디자인 관련 전공(학사 이상), 인디

자인, 일러스트, 포토샵 능통자 등

서류마감: 5월 5일(목)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파주물류센터 채용

모집: 경영본부 파주물류센터 직원(1명)

경력: 경력 무관

서류마감: 4월 8일(금)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OEM한국어교실 교사(봉사자) 모집

요일: 매주 토요일(계절방학 있음)

시간: 오전 9시~오후 2시

지원자격: 등록교인, 일대일수료자

제출서류: 신앙간증문, 자기소개서

문의: korean@onnurienglish.org

CMN 마하나임팀 국내 봉사자 모집

장소: 남부교회(종로구 창신동)

일시: 4월 24일 (주일) 오후 2시 남부교회

사역: 의료, 미용, 한방, 수기 치료,

경로사진, 진료 지원

참여: 의료 봉사에 관심있는 모든 분

문의: 권세윤 팀장(010-8898-3719)

CMN 마하나임팀 해외 봉사자 모집

일시: 7월 18일(월)~7월 24일(일)

장소: 인도네시아 롬복

대상: 의료인(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소아과, 한의사 및 간호사), 미용사 등

사역: 의료 (양, 한방), 미용, 진료 지원

문의: 권세윤 팀장(010-8898-3719)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총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총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사랑부 교사 모집

문의: 조현배 총무(010-3342-9459)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셔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재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일대일 양육자반(이진숙 권사반) 개강

일시: 4월10일(주일) 오전8시

장소: 강의동304호



〈프로그램 소개〉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눈으로만 읽던 책 내용을
귀로도 들을 수 있는 북세미나!

〈조동천 목사〉의

내 인생을 변화시킨 세 가지 질문



사탄의 시험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풀어보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

저자소개 : 신촌교회 담임목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책임교수



4월 13일 수요일 오후 8시 10분 첫 방송!

“고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온누리 성도님 여러분의
드림온캠페인 후원으로 전 세계 82개국에
1만대의 안테나가 세워졌습니다

드림온캠페인은 전 세계 27,205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에게 CGNTV 위성 안테나를
무상으로 설치해 드리는 캠페인입니다.



‘드림온’ (동전저금통)을
보내드립니다

안테나후원 및 드림통 신청문의 02-796-2243
후원계좌 573-910007-69605 하나은행 / (재)온누리선교재단

Tv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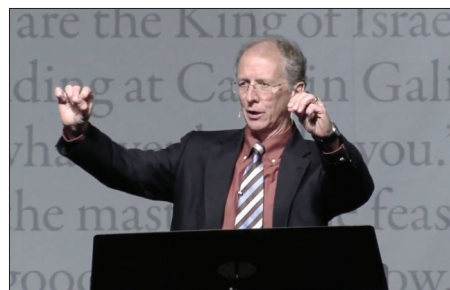
▷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4/11(월) 오전 11시 김기현 목사/로고스교회
'살려면 읽어야'
-4/12(화) 오전 11시 손안젤라 교수/미국 드
류대학교 '쾌락일까? 기쁨일까?'



▷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4/14(목) 오전 11시 30분
장애인 동화로 세상에 빛을 선물하며 차별없
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고정욱 작가의 삶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 [컨퍼런스] 언어의 축복

-4/12(화) 오후 4시 50분
말의 능력에 대해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
떻게 선포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컨퍼런스입니
다.

채널안내

IPTV

olleh G 채널237

SK Btv 채널554

LG U+ 채널183

케이블TV

C&M 채널703

CJ 헬로비전 채널702

시청문의
02-796-1118

주 | 간 | 편 | 성 | 표

4/10(주일)	4/11(월)	4/12(화)	4/13(수)	4/14(목)	4/15(금)	4/16(토)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13:00 생명의 삶 13:20 어린이예배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지구촌 반상회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마가 복음강해(영어자막)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5:30 크리스천 리더십 스쿨 16:50 전선 프랭클린의 부흥 18:50 [말씀]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21:00 [말씀]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 유집회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50 [컨퍼런스] 언어의 축복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8:50 [말씀]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21:00 하용조 목사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영어자막) 22:40 감동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안에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00 온누리교회 수요일예배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5:30 마이클 프로스트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할렐루야교회)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8:5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20:10 크리스천 리더십 스쿨 23:2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3:10 [말씀]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16:50 신학자들의 토크테이블 18:50 [말씀]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20:10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 성경, 체질, 건강 21:0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예수 만난 사람들(영어자막)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지구촌 반상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 (뉴욕IN2) 15:30 이기복 교수의 성경속 자녀코칭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8:5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20:10 마이클 프로스트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21:40 CGN 비전특강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7:00 [말씀] 조봉희 목사 (지구촌교회)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10: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3:10 [말씀]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15:30 나침반 바이블 16:30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 성경, 체질, 건강 19:00 마이클 프로스트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21:2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3:00 감동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안에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ARS 060-700-1660

CGNTV 페이스북 (FACEBOOK.COM/CGNTV) / 트위터 (TWITTER.COM/CGNTV) www.cgntv.net

CGNTV 중보기도
모임(드림온맘)에
초대합니다!!

■서빙고 월요탐: 첫째,셋째 월요일 오후 2시/금요탐: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재탐: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남양주탐: 금요일 오후 2시
■수원탐: 금요일 오전 10시
■문의: 후원관리팀 3275-9304